

특집논문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의 유용성과 한계*

Revisiting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Debates

이용숙**·이돈순***

본 연구는 2002년 태동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와 그 이후에 진행된 이론적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론적 논의들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이 한국의 지역발전 맥락에 줄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 연구를 통해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이 십여 년 동안 진행되면서 자체 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점들을 생산했으며, 이론적으로 기업 중심의 관점과 문화정치경제 관점으로 이분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기업 중심의 관점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업 내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문화정치경제 관점은 기업 중심 관점들을 비판하면서 국가, 노동, 소비자 및 시민사회 등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 권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방법론적 취약성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소 출범과 더불어 등장한 세계생산네트워크 2.0 이론의 기업 중심적 경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세계생산네트워크에 관한 심층적 문헌연구와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팀 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주요어: 세계생산네트워크(GPNs), 지역발전, 전략적 결합, 세계화, GPN 2.0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6A02048960)을 밝힌다.

** 제1저자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yongsooklee@korea.ac.kr)

*** 공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donsoon389@korea.ac.kr)

1. 머리말

국제연합 무역개발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2013년 세계투자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국제 무역의 80%가 세계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세계경제가 한층 더 통합되고 있고,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UNCTAD, 2013). 세계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업 간 관계가 확산, 진전되어 이들 사이의 국제적 분업구조가 형성,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은 2002년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경제지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고(Henderson, et al., 2002), 현재까지 다양한 이론적인 논쟁점들을 양산하며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이 야기한 이론적 논쟁들을 정리하면서, 이 이론적 논의가 한국 사회에 지니는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더 세계경제에 통합되었으며, 해외자본의 유입 및 초국가기업의 경제활동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과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무렵 세계화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한스 페터 마르틴·하랄드 슈만, 1997)과 찬성론적 입장(김희주 외, 1998; KIEP, 1998)이 대척점을 형성하였던 사실이 무색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의 총량은 115조 원에 육박하며, 2013년 한 해에만 13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본이 유입되었다고 한다(OECD, 2014).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 명목 GDP가 2014년 기준으로 약 15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자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외로

투자되는 우리나라 자본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외로 투자된 우리나라의 자본은 29조 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UNCTAD, 2014).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는 해외 직접투자 자본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소니, GM, 르노, 노키아, 보쉬, 김벌리, 필립스, 테스코, 맥쿼리, 론스타 등 해외 초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Coe and Lee, 2006; 2013).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직접투자 사례나 애플과 삼성, 애플과 LG, 삼성과 소니, 필립스와 LG 등 우리나라 기업들과 초국적 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 사례 역시 빈번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초국적 경제활동은 우리나라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르노가 부산지역 경제에(《한국경제》, 2015), GM이 인천지역 경제에(《파이낸셜뉴스》, 2010), 노키아가 마산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Lee, 1999)은 그러한 예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해외 자본과의 전략적 결합은 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삼성과 소니, 그리고 LG와 필립스의 전략적 제휴는 아산탕정 LCD 클러스터와 파주 LCD 클러스터 형성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4; 이용숙·허인혜, 2009; 2010).

지역발전에서 세계화 및 해외 투자자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영암에 F1을 유치하여 모터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시도한 바 있고(전라남도, 2006),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통해 세계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오갑원, 2004; 진린, 2006), 제주도 역시 중국 자본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양인준, 2012; 이형주·김인신, 2014; 주민욱·최낙진, 2015). 또한 통영과 부산이 각기 국제음악제와 국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났으며 지역 경제 희생의 기회를 잡았다(황은정·이용숙, 2012; 김호일, 2009; 박강미, 2013). 서울시도 해외 금융 자본인 맥쿼리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해외 금융 자본과의 불공정 계약을 교정하기까지 했다(김선화·이용숙, 2014).¹⁾

이렇듯 경제의 세계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지역들도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현재까지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논문들은 21편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하였거나(이용숙, 2006; 김석관, 2012; 이정협·김형주, 2005; 배영자, 2006; 박광호 2009; 류석진 외, 2011; 조성재, 2013; 임혜란, 2013),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 현상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이재열·박경환, 2005; 조성재, 2010; 김순영, 2011; 정명기, 2011; 2012a; 이경진, 2013).²⁾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의 관계를 논의한 논문도 세 편뿐이며(홍장표·이대식, 2006; 이용숙·허인혜, 2009; 이소은·금정호, 2014),³⁾ 글로벌생산체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논문은 두 편뿐이다(정명기, 2012b; 2012c).

- 1) 우리나라는 생산 영역뿐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도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25만 명의 외국인인 상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문에서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통계청, 2014). 또한, 최근 십 년 동안 이뤄진 외국인과의 혼인은 약 33만 건에 달하며(통계청, 2015a), 전체 학생의 약 1%인 6만 7천 명 가량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집계되고 있다(통계청, 2015b). 이렇듯 이민, 이주,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은 현상들로 표현되는 밑으로부터의 세계화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제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 생산 영역에서의 세계화를 설명하는 세계생산네트워크론에 국한하고자 한다.
- 2) 이재열·박경환(2005)이 LG의 IT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성재(2010)가 삼성, LG, 현대자동차의 세계생산네트워크, 김순영(2011)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정명기(2011, 2012c)가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이경진(2013)이 한국 화장품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다.
- 3) 홍장표·이대식(2006)이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용숙·허인혜(2009)가 LG와 필립스의 세계생산네트워크가 파주LCD 산업집적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금정호가 ICT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 지역별 불균등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맨체스터 대학의 경제지리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은 십여 년 동안의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거치면서 이론 자체도 진화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와 논점들을 생산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처럼 특정 기업 및 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로만 한정한다면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유래가 되는 헨더슨 외 논문(2002)의 주요 논점을 정리한 후, 그 이후에 진화되는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 학자들 중심으로 주도된 기업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과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시작된 문화정치경제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을 검토한 후 양 관점이 강조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에 출범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주장하는 세계생산네트워크론 2.0(GPN 2.0)을 소개한 후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세계생산네트워크론 논쟁이 지니는 유용성과 한계를 한국적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세계생산네트워크에 관한 심층적 문헌연구와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팀 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2.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태동

유럽연합의 등장과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급성장하는 싱가포르 현실을 목격하면서 영국과 싱가포르의 학자들은 2002년에 세계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 논의를 세계화시대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하였다(Henderson et al., 2002). 이 연구에는 맨체스터대학의 경제사회학자인 헨더슨(Henderson), 맨체스터대학 지리학과와 디킨(Dicken), 코(Coe)와 헤스(Hess), 그리고 맨체스터대학 박사 출신의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융(Yeung)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이들의 소속 및 출

신 대학으로 인해 이 연구는 맨체스터학과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들이 제시한 2002년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는 경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설적인 이론적 분석틀로 볼 수 있다. 해당 논의는 맨체스터 학자들이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를 위해 영국의 사회과학 연구재단인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에 제출된 연구제안서의 이론적 논의를 정교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의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는 세계화 속 경제행위자들 간 연계의 다차원성과 상품 및 재화의 생산·분배·소비 공간의 다규모성을 강조 하면서, 이러한 세계경제활동의 네트워크적인 성격과 그 결과가 초래하는 지역적 불균등성을 개념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세계생산네트워크를 다규모적 생산·분배·소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연관된 기능과 활동의 연결망으로 지칭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와 차원들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경제발전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하려 했다. 이들 ‘맨체스터학파’는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 3가지 범주와 4가지 차원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려 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치(value), 권력(power), 착근성(embeddedness)이라는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세 가지 범주의 특성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되지만, 이 세 가지 범주는 기업(firms), 제도적 기관(institutions), 네트워크(network), 산업부문(sectors)이라는 4가지 차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렇듯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는 세계화되는 경제에서 기업들의 다규모적이고 다입지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3가지 범주와 4가지 차원을 통해 고찰했다. 나아가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는 이러한 다규모적, 다입지적인 경제활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검토하여 세계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어떤 지역이 쇠퇴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역발전을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의 산물로 파악했기 때문에 지역의 운명은 지역 내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시장 요인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지역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다규모적, 다차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도 및 기관들이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작동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로 상호작용함에 따라 생산의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때 생산네트워크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통되며, 그 결과 지역별 발전이 불균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개별 지역들이 세계생산네트워크에 통합되고 편입되는 방식에 따라 지역 내에 가치가 창출되고 포획되는 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창출 및 포획 정도에 따라 지역 발전의 양상이 상이한데, 대표적으로 가치의 창출과 포획이 모두 높은 경우와 가치는 창출되고 있지만 포획되는 정도가 낮은 경우, 가치 포획을 위한 노력은 있지만 지역 내에 창출되는 가치가 적을 경우, 마지막으로 가치의 창출과 포획이 모두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특정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중심(focal) 기업'이 있고 이 중심 기업이 그 지역 내에 있는 1차 부품업체 및 유통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른 산업의 중심 기업 및 몇몇 OEM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지역은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내에 시정부와 기업들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과 지역 노동 집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해당 지역 내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 내에 포획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지역 내에 중심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부품업체와 분공장만 존재하며, 노동조합 집단도 부재하고, 지역 정부 역시 지역 내에 창출되는 가치들을 착근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지역 내에 가치가 창출되고 포획

되는 정도는 모두 낮다. 또한, 만약 지역 내에 특정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중심 기업이 존재하지만 지역 내의 다른 기업들과 상호 의존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외의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이 지역의 경우 가치는 창출될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지역 내에 포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비록 2차 부품업체들과 분공장들만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가치가 창출되는 정도는 낮지만, 그 지역 내에 기업 이윤의 해외유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면 가치의 포획 정도는 높을 수 있다.

이렇듯 맨체스터학파의 세계생산네트워크 분석들은 지역이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연계되는 방식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성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분석들은 단순한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의 연계 여부가 지역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는 결정론적인 시각들과는 차별화된다(Henderson et al., 2002; 이용숙, 2006).

2002년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는 세계화되는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라는 변수 보다는 글로벌(global) 행위자로서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s)과 로컬(local) 차원의 지역제도, 지역자산, 및 지역행위자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화시대의 지역발전론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인 논의들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⁴⁾

4) 이처럼 2002년 발표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가(Henderson et al., 2002)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영국의 경제지리학자 디킨은 실질적으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화 연구를 시작한 학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86년 *Global Shift*를 출판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으며, 2015년 현재 개정 7판을 내놓으며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을 심화·발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이후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과 연구들은 디킨의 제자들인 맨체스터의 경제지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3.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진화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의 지원을 받은 헨더슨 외 연구(2002)는 세계생산네트워크와 관련된 많은 의미 있는 논쟁들을 끌어내었지만, 해당 연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많은 연구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⁵⁾ 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를 연구할 때 그 기업이 맺고 있는 다층적인 기업 간 관계, 즉 그 기업의 원재료 공급업체, 1차 부품업체, 2차 부품업체와의 거래 등과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로 간주되어 해당 자료 획득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ESRC의 지원을 받은 초기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 자체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해당 논의가 학계에 미친 영향은 컸다고 볼 수 있다. 헨더슨 외의 발표 이후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의 다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350편이 넘는 SSCI 등재 논문들이 출판되었다.⁶⁾ 이렇듯 십여 년 동안의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거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론 자체도 진화하였고 세계생산네트워크 내 이론적 관점도 분화되었으며 다양한 주제와 논점들을 낳았다.

1) 기업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 경쟁력과 지역성장

코 외 논문(Coe et al., 2004)에서는 내생적 성장 요인만을 강조하는 신지

5) 기업 네트워크 조사의 한계로 인해 ESRC에서 받은 연구비의 반 이상을 ESRC에 반납하면서 맨체스터 학자들에 의한 ESRC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프로젝트는 많은 연구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6)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SSCI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global production network'를 제목, 주제어 혹은 초록으로 검색하면 352편의 논문이 검색되고, 인용 횟수는 4,432나 된다(<http://apps.webofknowledge.com>).

역주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지역발전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를 조절하는 초지역적 행위자들의(trans-local actors) 전략적 필요(strategic needs)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기업 중심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내생적 성장 요인인 지역 자산들(regional assets)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와 전략적으로 결합될 때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면서, 이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을 지역발전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인 성장 요인인 지역적 자산과 초지역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필요들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결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전략적 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공간적 고착성과 유연성,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집단이 초국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성장 연합에 동조해야하는 파트너로서만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역의 발전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은 지역의 성장을 위해 노동의 유연성 강화라는 기업 측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임금 협상에서 기업 이윤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코 외 논문의 기업 중심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 외 논문(2004)에서 제시된 전략적 결합이라는 개념을 아시아적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는데 이들 연구들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해외 초국적 기업들과 전략적 결합을 이룬 아시아 기업들의 성장과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연구들은 경제적 성장을 이룬 아시아 지역들의 성공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이 더 이상 국가의 역할 혹은 국가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중심 기업인 초국적 기업의 전략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정책들은 지역 성장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면

서, 결국 지역 행위자들이 초국적 기업들의 전략적 필요를 어떻게 지역의 이해와 잘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장 여부가 결정됨을 강조하였다.

기업의 관점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를 연구한 대표적인 아시아 학자로는 용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기업의 전략적 필요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했다(Yeung, 2009). 그는 1990년대에 가속화된 세계화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초국적 기업들은 비용절감, 유연성 확대, 시장 대응 속도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전략은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역학관계로 구체화 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입지 변경이나 유연성 및 시장 대응 속도 개선을 위한 아웃소싱 전략의 채택, 전자문서교환(EDI),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의 조직적·기술적 해결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용(2009)은 이러한 세계생산네트워크 속의 역학관계가 지역발전에 중대하고도 차별화된 영향력을 미침을 언급하면서도, 그 효과는 지역 행위자와 세계생산네트워크 사이의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의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략적 결합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초국적 전문가 집단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수직 분할 및 수직 전문화 등의 산업 조직 변화, 그리고 지역 행위자와 초국적 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관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용(2009)은 이러한 요소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초국적 기업과 지역 행위자 사이의 전략적 결합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궤적에 차별성을 야기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전략적 결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국제파트너십의 형성’, ‘내부 혁신 창출’, ‘생산 플랫폼의 형성’을 제시하며,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형태의 역학관계 및 차별화된 결합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실증 사례로서 싱가포르, 대만,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들의 발전궤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례들은 하나 이상의 발전 궤적을 경험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국제 파트너십의 형성’과 ‘내부 혁신 창출’의 두 가지 형태의 전략적 결합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내부 혁신 창출’의 전략적 결합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경우 ‘내부 혁신 창출’과 ‘생산 플랫폼의 형성’의 전략적 결합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에는 ‘플랫폼 형성’의 전략적 결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2009)의 연구는 기업 이외 행위자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전략적 결합을 설명함에 있어 국가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중심적 설명은 그의 최근 연구(Yeung, 2014)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더 이상 국가가 지역 경제와 산업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보다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기업 간 역학관계(inter-firm dynamics)가 지역 발전에 훨씬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Yang, 2009)의 연구 역시 윤(2009)의 연구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지역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윤(2009)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간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 결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중국 IT산업에 대한 대만의 투자자본이 주강강(Pearl river) 유역의 동완(Dongguan)에서 양자강(Yangtze river) 유역의 소주(Suzhou)로 이동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투자자본의 이동의 원인을 대만의 함선기업(flagship companies)과 하위 제조업체 사이의 전략적 결합에서 찾고자 했다. 양(2009)은 해외 투자자본 유치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동완과 소주 사이에서 함선기업들이 더 좋은 전략적 조건을 제공하는 소주 지역에 투자를 늘림에 따라, 하위 제조업체들도 모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동완 지역에서 소주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거나 확장 하였다고 설명했다. 양(2009)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적 기관의 노력보다 우위에 있

으며, 기업이 지역 간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기업이 지역에 갖는 착근성이 낮을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소주 지역의 투자 자본도 결국에는 동완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저자는 소주 지역에 대한 함선기업의 투자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 소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클러스터 생성 노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투자 개방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였다.

이처럼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전략적 결합 과정을 논할 때 기업의 전략적 선택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거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학자가 있는 한편, 국가를 전략적 결합 과정의 중요 분석 단위로 상정한 뒤,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국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음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 양 외(Yang et al., 2009)는 사회 공동체를 비롯한 제도적 기관과 세계생산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역발전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을 연결시키는 전략적 결합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전략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 행위자들의 의도적 관여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합을 형성하는 구조적·조직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양 외의 논문(2009)은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 내의 행위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그러한 행위자들이 정치·경제적 관계 및 지배구조를 만들고 제도적 규칙들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전략적 결합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저자들은 전략적 결합 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기업, 기술 커뮤니티, 국가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 착근된 자산이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중심 기업의 전략 및 자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초국적·초기업적 활동을 통해 암묵지를 전달하는 기술 커뮤니티가 전략적 결합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마지막으로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기업의 행태와 시장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 외(2009)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략적 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존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연합, 알력, 분쟁, 탈결합(decoupling)의 복합적 양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그들은 대만 내의 첨단 산업단지 구성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며, 신주(Hsinchu) 산업 단지 조성 시기 이후에는 국가의 역할이 산업을 창출하던 창조자(demiurge)의 모습에서 벗어나 조력자 역할(husbandry role)에 국한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경쟁력 관점에서 중심 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초기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의 비판적 시각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는데(Levy, 2008), 이러한 비판을 기존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자들도 역시 수용했다(Coe et al., 2008). 또한 과연 지역 발전의 이슈들과 전략들이 세계화되는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조건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Coe et al., 2008; Dicken, 2011; 2015). 더구나 기업 간 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기업 내 관계(intra-firm)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이 기업 내 관계를 통해 불법적으로 가치를 이전(value transfer)하거나 조세를 포탈(tax evasion)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Dicken, 2015). 이러한 초국적 기업의 행태는 지역 내 가치 포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관계 중심의 기존 연구들은 기업 내 관계의

7) 양 외의 연구(2009)는 실증 사례로서 대만의 첨단기술산업단지 형성 과정을 예로 들면서 신주(Hsinchu), 대중(Taichung), 대남(Tainan)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결합의 양상이 기업, 커뮤니티, 국가의 상호과정에 의해 달라졌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주(Hsinchu) 산업단지 형성의 경우 국가와 초국가적 기술 커뮤니티의 상호관계가 큰 역할을 수행한 반면, 대남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기업 중심 기술 이전에 의해 기술 산업단지의 형성이 촉진되었으며, 대중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제한적 지원을 받은 기술 연합이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초국적 기업들의 부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문화정치경제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

세계생산네트워크 학자들 중 코(Coe), 디킨(Dicken)과 헤스(Hess)는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초기의 비판적 시각을 잃었다는 레비(Levy)의 비판에 화답하면서, 문화정치경제(cultural political economy) 관점과 세계생산네트워크 관점의 접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Coe et al., 2008). 문화정치경제 관점은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gency)에 대해 고려할 뿐만 아니라,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사회문화적으로 착근되는 경제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세계생산네트워크의 다차원적이고 다규모적인 본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생산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쟁의 장(contested fields)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불균등한 권력관계들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경쟁(conflicts and competition), 교섭과 협상(bargaining and negotiation), 협력과 협동(cooperation and collaboration)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권력관계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문화정치경제 관점과 접목된다면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경제적(economic)이고 물질적인(material)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의 담론적인(discursive) 차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 디킨과 헤스는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기업 간 거래(inter-firm transaction) 관계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는 초기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비판하며 차별화했던, 선형적(linear) 세계가치사슬이론(Global Commodity Chains: GCCs; Global Value Chains: GVCs)으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기업 간 거래관계는 세계생산네트워크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Coe et al., 2008). 그들은 세계가치사슬 관점으로부터 세계생산네트워크 관점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기업 간 관계에 매몰되기 보다는 세계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과 그 관계들을 포괄하면서 그 권력관계를 분석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코 외(2008)는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탐구하는데 있어 문화정치경제 관점은 유용한 분석틀과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초기 비판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업 간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세계가치사슬 접근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들은 문화정치경제 관점을 수용하는 한편,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nation state), 노동조합, 시민사회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 소비자들을 명시하면서 그들 간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Coe et al., 2008).

(1) 세계생산네트워크와 국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고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 협정들이 진전되는 환경 속에서도 국가는 필요조건으로 축소되기보다는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다(Coe et al., 2008). 허드슨은 국가가 가치 순환(circuits of value)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재생산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Hudson, 2008). 이처럼 세계생산네트워크 내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디킨에 의해서도 자세히 설명된 바 있는데, 그는 세계화 경제에서 초국적 기업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8)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기공급방식(just-in-time management), 린 물류(lean logistics), 공급자 재고관리(vendor-managed inventory), 직송(direct delivery) 등과 같은 물류 전략 및 물류(logistics)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존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들은 물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더 다양한 행위자들과 대상들을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 대상으로 포괄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가 여전히 문화와 제도의 담지자(container), 규제자(regulator), 협력자(collabor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권력 역시 축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Dicken, 2015).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국가는 여전히 제도와 문화의 담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통합이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제활동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법망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 및 전략적 산업정책 추진 등과 같은 국가의 전통적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는 비관세 정책, 산업 및 기술관련 정책, 노동시장 정책, 합병 및 경쟁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해외투자정책 등에서 규제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역블록화 추세 속에서 국가는 협력자로서 지역통합협정의 확산(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디킨의 주장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의 실증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초국적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초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Liu and Dicken, 2006; Coe et al., 2008; Dicken, 2015). 이렇듯 중국 정부는 해외 초국적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가 중국 내에 영역적으로 착근하도록 강제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국가가 의무적 착근성(obligated embeddedness)을 높일 수 있었던 근거는 해외 초국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적 자산(local asset)이 중국 영역 내에 있었으며 그 자산에 대한 통제 권한이 중국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Liu and Dicken, 2006). 이러한 중국 자동차 산업 사례는 중국 국가가 해외 초국적 기업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우위에 있었으며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의 경우도 LCD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에서 국가가 초국적 기업들 간의 전략적 결합을 직접 정책적으로 주도했을 뿐 아니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역 경제단체 및 기관들을 설립하였고 이 기관들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혁신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Lee et al., 2014). 싱가포르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형성에서도 국가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클러스터 형성에 간접적인 역할이 아닌 창조자(creator)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Lee and Tee, 2009).

(2) 세계생산네트워크와 노동

노동은 지역과 국가라는 경계에 고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skill), 성(gender), 연령(age), 민족성(ethnicity)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기존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수동적인 희생자 혹은 노동시간으로 환원되는 추상적인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 묘사되었을 뿐, 행위자로서의 노동조합, 계급 갈등 및 저항 등이 적극적으로 이론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를 비판하면서 코 외는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노동의 이슈가 노동지리학의(labor geographies)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Coe et al., 2008). 문화정치경제 관점에 근거를 둔 노동지리학은 기존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들이 자본의 관점에서 자본 축적의 논리로 노동의 문제를 다루었음을 비판하면서, 향후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들이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조직 형태인 노동조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주장하였다(Cumbers et al., 2008).

이들에 따르면, 적극적인 행위자인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은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공간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존재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Cumbers et al., 2008).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계

급이 가지고 있는 분절적 특성 및 이들의 행동과 전략이 지역 발전 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상과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소비자, 시민사회 조직

생산자(productionist)의 관점에서 생산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에서 가장 간과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소비 영역이며 소비자 집단 역시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 세계글로벌가치사슬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지니는 의미와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았다(Coe et al., 2008). 허드슨은 자본주의하에서 상품은 광고로 인해 실용적 사용 가치(utilitarian aspects of commodities)를 넘어서는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상징(culturally coded symbolic)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와 로고들은 문화적 상징으로서 권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략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Hudson, 2008). 따라서 허드슨은 향후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에서 문화정치경제 관점을 접목시켜 상품들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초국적 기업과 소비자 간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생성, 변화시키는 지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는 소비자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소비자 집단 내에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가 어떻게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초국적 기업들의 전략들을 변화시켰고, 기존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조직들에 도전했는지를 검토했다(Hughes et al., 2008). 이 연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 실천(ethical consumption practices)이나 윤리 캠페인(ethical campaigning)이 세계경제하에서 기업의 노동조건 기준 강화와 윤리 강령 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끌어내면서, 생산자 중심의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지각 변동을 결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들은 이러한 윤리적 소비운동이 신자유주의와 민영화라는 지배담론을 반박하면서, 소비자(consumers), 판매자(retailers) 및 생산자(producers)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의 변화와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의 중심 주제로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원자화된 소비자들은 초국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시민사회조직들(civil society organizations)이다. 그러나 기존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에서 시민사회 조직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몇몇 연구들은 시민사회조직들은 기업에 대해 행동의 변화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Coe et al., 2008; Hughes et al., 2008).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산’, ‘노동환경의 개선’, ‘동물실험 반대’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캠페인 조직, 연구 활동 조성,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공개, 정부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한편 조직화되지 않은 소비자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O'Rourke, 2005).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산업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연구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시민사회조직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규합시키는 한편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초국적 기업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O'Rourke, 2005). 즉 시민사회조직은 단순히 소비자를 규합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시스템의 주요 동인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조직은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최상위 공급자, 소매상, 구매업자 등을 밝힘으로써 문제와 책임의 소지를 파악하는 한편, 좀 더 효과적으

로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시민사회조직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더욱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여론이 자생적으로 조직화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조직과 소비자의 활동 범위가 기업과 제도적 기관들을 넘어 시장 상황이나 정치 상황 등 세계생산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차원에 폭넓게 걸쳐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행동이 세계생산네트워크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3) GPN 2.0과 GPN@NUS 센터의 출범

헨더슨 외(2002) 논문이 출판된 이후 거의 15년에 가까운 이론적 논쟁을 거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기업 중심의 논의와 다양한 행위자와 권력관계를 강조한 문화정치경제 관점의 논의로 양분되면서 이론적 논쟁들이 정리되고, 이론으로서의 수명을 다하는 듯하였으나, 우연한 계기들에 의해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이 다시 점화되게 되었다. 우선 World Bank, OECD, WTO, UNCTAD 등의 주요 국제기구들이 지역발전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세계생산네트워크 및 세계가치사슬을 언급하면서(UNCTAD, 2013; Cattaneo et al., 2010; Yeung and Coe, 2015),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다시 촉발되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맨체스터 경제지리학자인 코가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지리학과로 이동하고, 같은 과에 있던 융과 함께 싱가포르 연구재단으로부터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재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싱가포르 연구재단은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센터 설립 자금으로 \$4.95 million(약 40억 원)을 지원해주었고, 이 연구 지원금으로 싱가포르국립대

내에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센터인 GPN@NUS가 설립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다시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2015년 1월 26일 GPN@NUS 센터의 착수식과 함께 세계생산네트워크 센터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싱가포르국립대 내의 지리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학자들의 참여로 동아시아 중심의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출범과 더불어 융과 코는 경제지리학 학술지에 논문 기고를 통해 GPN 2.0이라고 명명한 세계생산네트워크 이론을 제시했는데(Yeung and Coe, 2015), 이 GPN 2.0을 통해 향후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융과 코는 2002년 핸더슨 외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를 GPN 1.0으로 명명하면서 이 논의가 조직적 플랫폼(organizational platforms)의 동인(dynamics)의 근원에 대해 제대로 이론화시키지 못한 반면, 권력(power)이나 착근성(embeddedness) 같은 분석적 범주들에 대해 지나치게 이론화했음을 비판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인자에 대해 개념화를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GPN 1.0은 어떻게 세계화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조직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는데, GPN 2.0은 상이한 산업들과 다른 경제체제 하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들이 다르게 조직되고 조절되는 이유와 과정을 이론화하는데 초점을 두어, 세계생산네트워크 조직 과정 및 그 동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융과 코는 세 가지의 결정적인 경쟁적 동인(three critical competitive dynamics)과⁹⁾ 위험 환경(risk environment)들을¹⁰⁾ 세계생산네트워크들을 형성하고,

9) 융과 코가 지적하는 세 가지 경쟁적 동인은 비용-역량 비율의 최적화(optimizing cost-capability ratios), 시장의 긴요함 혹은 압력(market imperatives), 금융적 규율(financial discipline)이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비용-역량 비율을 어떻게 최적화할 지에 따라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구성과 성격이 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하청을 확대할지, 아니면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을 내부화할 지에 따라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구성과 성격이 달라진다. 낮은 비용과 높은 역량을 지닌 기업은 낮은 비용-역량 비율로 인해 가장 경쟁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구현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시장의 긴요함과 압박 정도

작동시키며, 진화시키는 인과적 메커니즘(causal mechanism)으로 간주했다. 더불어 그들은 ‘경쟁적 동인’ 및 ‘위험 환경’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적 동인이 세계생산네트워크의 환경을 구성하는 경제 행위자의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며, 궁극적으로는 왜 각기 다른 산업, 지역 및 나라들에서 각기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결정 인자로 보았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각자 서로 다른 경쟁적 동인 및 위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하며, 그들이 추구한 나름의 구체적인 전략들의 결과로 그에 맞는 세계생산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Yeung and Coe, 2015).

세계생산네트워크들이 형성되고 작동된다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하청관계가 확산되거나 기업 간 관계가 진전되어 기업들 간의 복잡한 국제적 분업구조가 형성, 진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는, 이미 융과 코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세 가지 경쟁적

에 따라 기업들의 전략들 역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세계생산네트워크 구성과 성격이 달라진다. 높은 비용-역량 비율을 지닌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재정립하기 위해 그들의 생산네트워크를 재배열하도록 강요받는다. 하지만 낮은 비용-역량 비율을 지닌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에서의 선점자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계생산네트워크에서 시장의 긴요함은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인 고객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세계생산네트워크 이론의 완성은 비용-역량 비율의 최적화와, 시장의 긴요함이라는 결정적 변수들과 더불어 금융적 규율이 라는 변수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주들의 금융적 규율을 강하게 받는 기업의 경우 새로운 공장이나, 장비, 기술과 제품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금융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체들을 리엔지니어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한 금융적 규율 하에서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및 단위당 낮은 구입가격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적은 수의 대규모 부품업체들과 거래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10) 세계경제에서 기업들은 경제, 제품, 규제, 노동, 환경 위험이라는 다섯 가지 형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은 시장이나 기술 조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며, 제품 위험은 품질이나 다른 이슈들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으로 발생되며, 규제 위험은 규제 체제의 변화로 인한 위험이며, 노동 위험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과 관련된 노사분규로 인한 위험이며, 환경위험은 공해나 자연적 재해로 인한 위험이다(Yeung & Coe, 2015).

동인인 ‘비용-역량 비율의 최적화’, ‘시장 압력’, ‘금융적 규율’과 다섯 가지의 위험 환경들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옹과 코는 기업들이 상기와 같이 각기 다른 경쟁적 동인 및 위험 환경에 대응하여 세계생산네트워크를 (재)배열하는데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크게 4가지로 유형화했다.

첫째 전략은 기업 내 조정으로(*intrafirm coordination*) 수직적 통합을 통해 내부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내부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높은 전매특허 역량을 지닌 기업들은 비용 대비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이에 근거하여 내부화 전략을 추진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분절되는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내부 조정 전략을 통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적 규율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업 간 통제(*interfirm control*) 전략으로, 이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보유한 역량에 비해 비효율적인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가치 활동의 상당 부분을 부품업체나 하청업체로 외부화(*externalization*)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도 낮아 시장의 긴요함(*market imperative*)이 낮은 편이며, 높은 강도의 금융적 규율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기업들은 대부분의 가치 활동들을 외부화시키고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전략은 기업 간 파트너십(*inter-firm partnership*) 전략으로, 이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높은 시장 압력, 높은 금융적 규율, 높은 위험 환경에 놓여 있어, 기존의 기업 간 통제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번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간 통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외부화 전략을 협력적 파트너십 전략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포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단기 이익 추구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간 관계의 성격을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 전략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기업 외 협상(*extra-firm*

bargaining) 전략으로 기업 및 비기업 행위자(non-firm actors)들은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을 증대시키거나, 전매특허 권리(proprietary rights)를 획득하고, 사회적, 정치적 합법성(social and political 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리소비나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소비자 및 시민사회 조직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반응하면서 구매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구성과 성격을 조정하는 기업의 경우가 기업 외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Yeung and Coe, 2015).

이렇듯 GPN 2.0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경쟁적 동인과 위험환경에 대해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 서로 차별화된 세계생산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GPN 2.0논의가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을 설명함에 있어 기업의 조직적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 중심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으로 회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GPN 2.0이 기업 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소비자, 시민사회 조직들이 세계생산네트워크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경제적 행위자들의 중요성은 세계생산네트워크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전략이나 기업 간 관계를 설명할 때만 중요할 뿐, 이들이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분석의 초점 자체가 기업 간 관계와 기업 전략에 있으며, 이러한 기업 간 관계와 전략을 설명할 때 역동적 환경의 일환으로 비경제적 행위자들이 고려될 뿐이다. 결국 GPN 2.0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러한 전략들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결과나 기업 외 행위자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2015년에 GPN 센터가 막 출범했고, 이 센터 안에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전공한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가 강화될 가능성은 커 보인

다. 이는 World Bank, OECD, WTO, 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이 세계 가치사슬(GVC)과 세계생산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GPN 2.0이 세계가치사슬 논의와의 학문적인 접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들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가 GPN 2.0과 방향성을 같이하면서 기업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를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4. 결론: 한국적 맥락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의 유용성과 한계

이상으로 세계생산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쟁들을 정리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이 제기한 다양한 논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이 지닌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논점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 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1980년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1990년대 말 이전까지는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의 유치에 기인하기보다는 재벌의 전략적 육성과 성장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이며, 민주화를 겪으면서 시민사회 조직들이 성숙하고 노동조합운동이 빠르게 성장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전념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1990년대 이전까지 국가 주도의 재벌 중심 산업화를 이룩하고, 그 속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했던 한국의 조건 속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간의 분업구조를 뜻하는 세계생산네트워크는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화는 한국의 현실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한편에서는 아시아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생산네트워크에 통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반면에(김희주 외, 1998; KIEP, 1998),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시장 개방이 경제 위기를 야기했음을 지적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에 편승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1997). 그러나 이렇듯 세계생산네트워크를 기회의 창으로 보거나 세계생산네트워크를 덮으로만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들은 세계생산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큰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많은 수의 해외 초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우리나라 지역들의 성장과 쇠퇴에 복합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이분법적 주장들은 복잡하게 세계화되는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반면에, 2002년에 맨체스터학파에 의해 발표된 세계생산네트워크 분석틀은 세계화되는 경제에서 기업들의 다규모적이고 다입지적인 경제활동과 그 네트워크가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은 지역발전을 관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지역 내부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의 광범위한 요인들을 결합시켜 지역발전을 설명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계생산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성장하고 다른 지역은 쇠퇴하는 한국의 지역 불균등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F1을 통해 외국 자본과 초국적 기업들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지역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반면(김태일, 2014), 아산·탕정 및 파주 지역은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LCD 산업단지를 형성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이용숙·허인혜, 2009; 2010). 이렇듯 세계생산네트워

크론은 불균등 발전이 지역과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세계생산네트워크크론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지역의 운명이 지역 내적인 요인들과 지역 외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지역발전이 단순히 세계생산네트워크에 지역이 편입되면 성취될 수 있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한편, 가치의 창출과 포획을 유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경쟁력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바라본 ‘전략적 결합’이란 개념은 지역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로컬 행위자들이 초국적 기업들이나 글로벌 행위자들의 필요를 파악해 이에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지역 성장의 사례들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통영시와 부산시가 국제음악제와 국제영화제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영과 부산의 지역적 자산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음악가나 영화인들의 필요와 전략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지역적 행위자인 제주도와 글로벌한 중국 자본이 전략적으로 결합한 사례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행위자와 지역적 행위자의 전략적 결합에만 초점을 둘 경우 국가라는 중요한 변수가 간과되어 한국의 지역 성장의 다른 사례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과주와 아산탕정의 지역 성장의 경우 국가가 제도 개혁과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 행위자들의 전략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경제 행위자들과 조직들을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이용숙·허인혜, 2009; 2010). 이는 국가가 글로벌 행위자인 초국적 기업들과 지역적 행위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규모 간 조정자(inter-scalar mediator)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14). 이는 발전국가의 유산과 전통을 지닌 국가가 산업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전략적 결합의 개념을 글로벌한 행위자와 지역적 행위자 간의 결합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와 다른 행위자들을 포함시키는 다규모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세계생산네트워크 속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나 정책 수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제3세계 지역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설명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지역들에 새마을 운동이 전파되는 사례들이나(임형백, 2011; 박한규, 2013) 대덕과학단지(를 비롯한 한국형 과학 기술단지(K-STP) 조성 정책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들도(미래창조과학부, 2015) 세계생산네트워크의 분석 틀로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생산네트워크론에서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서 주목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들이다.

GPN 2.0은 기업의 다양한 전략들에 초점을 맞춰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작동되고 진화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력을 지니기 때문에 재벌 주도로 구성된 한국 기업들의 세계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되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업 간 통제(interfirm control) 전략은 재벌과 국내 부품업체들 간의 위계적인 기업 간 관계의 성격과 재벌 주도의 세계생산네트워크들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주도의 세계생산네트워크에서도 기업 간 관계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는 재벌이 다른 해외 초국적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일본 및 독일의 원재료업체들 및 부품업체들과 거래관계를 맺을 때 기업 간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벌 주도의 세계생산네트워크가 기업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간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GPN 2.0은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재벌은 수직적 통합을 통해 내부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독특성을 지니는데, GPN 2.0의 기업 내 조정(*intrafirm coordination*)이란 개념은 이러한 재벌의 독특성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GPN 2.0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서 기업 내 조정, 기업 간 통제, 기업 간 파트너십을 독립적인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업 내 관계(*intra-firm*)가 어떻게 기업 간 관계의 구조를 규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재벌의 막강한 권력은 재벌의 원활한 기업 내 조정 능력에서 나오며, 이러한 기업 내 관계의 유연성은 기업 간 관계를 규정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GPN 2.0은 분석의 초점을 기업 간 관계 및 기업 전략에 두는 한편 기업 내 관계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또한 한국 맥락에서 재벌의 폐쇄성으로 GPN 2.0의 유용성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재벌의 폐쇄성은 현실적으로 자료 공개를 제한하여 재벌의 기업 간 관계나 기업 내 관계의 분석을 크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경험은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 조직들을 성장시켰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나 해외 초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와 그들의 생산네트워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나, 아직 이에 대해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관점에서 분석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에 관심을 두는 문화정치경제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은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조직들이 성장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스코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마트, 롯데마트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만은 아니며, 교섭력이 강한 국내 재벌 제조업체들과 독특한 소비 성향을 지닌 강력한 소비자 집단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Coe and Lee, 2006; 2013). 최근 한국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강행한 한편(《한겨레》, 2014), 모기업 테스코를 대상으로 계열사인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견을 얻 바 있으며(《뉴시스》, 2014), 소비자 집단 역시 홈플러스의 경품 사기 행각과 고객 정보 판매 행위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바 있는데(《경향신문》, 2014), 이는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 집단과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테스코 사례는 국내의 행위자들이 초국적 기업의 구매 전략과 세계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처럼 세계생산네트워크 형성에서 비경제 행위자인 국내 경쟁업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주요 개념들은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 및 지역들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 개념적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른 공간적 층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초국적 행위자들이 지역에 착근되는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다른 종류의 착근성인 사회적 착근성, 네트워크 착근성, 및 영역적 착근성의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구별하여 입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정교함이 부족하다.¹¹⁾ 이러한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 몇몇 세계생산네트워크론자들이 방법론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기업 간 관계 및 전략에 초점을 두는 GPN 2.0으로 선회하기도 했지만, 기업 간 관계에 초점을 두는 GPN 2.0 연구도 현실적인 제약을 지닌다. 세계생산네트워크들의 형성, 작동,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되는 하청관계나 기업 간 관계에 대한 자료들의 확보가 매우 필수적인데, 이러한 자료들의 확보는 기업들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간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GPN 2.0이 폐쇄적 기업구조를 지닌 한국적 맥락에서 가능할 수 있을 지는 향후 자료에 대한 기업의 개방성에 달려

11)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권력관계의 변화, 사회적 착근성 및 네트워크 착근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개념들을 정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들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다.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세계생산네트워크에 대해 비판적인 GPN 2.0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 지를 문제제기하면서, GPN 2.0의 학문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제공에 대한 기업 측 협력 없이 세계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밝힌다.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7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6월 16일

❖ Abstract

Revisiting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Debates

Lee, Yong-Sook·Lee, Don-So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original Global Production Networks framework in 2002 and its theoretical debates and examine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GPN studie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the original GPN framework has been evolved with the creation of various theoretical issues and divided into two important perspectives — the firm-centered view and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view — through the theoretical debates over 14 years. While the firm-centered perspective with the focus on competitivenes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firm relations, it relatively overlooks the role of the nation states and underestimates the importance of the intra-firm relations.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view pays attentions to the various non-economic actors such as the states, labor, consum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ower relations among them, but reveals methodological limitations. We also critically examine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2.0 theory, which was cre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research center in Singapore. We elucidate the relevance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debate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is methodologically based on an in-depth literature review o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on the GPN research team.

Keywords: global production networks(GPNs), strategic coupling, regional development, globalization, GPN 2.0

참고문헌

- 김석관. 2012.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 분업에 관한 이론적 쟁점: 통합적 분석 틀의 모색」. 《지역연구》 제28권 제2호, 95~127쪽.
- 김선희·이용숙. 2014. 「지역개발에 있어서 초국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지리학회 2014년 지리학대회 발표 논문 요약집.
- 김순영. 2011. 「생산의 세계화와 한국 자동차산업 생산네트워크의 재편」. 《한국정치연구》 제20권 제2호, 155~180쪽.
- 김태일·좋은예산센터. 2014.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코난북스.
- 김호일. 2009.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허브」. 자연과 인문.
- 김희주 외. 1998. 「KIET 정책자료 19호: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 류석진·김용복·한영빈·조희정. 2011. 「초국적 기업(TNC)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과 한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초국적 기업과 국민국가 관계 재검립」. 《한국시민주리학회보》 제24권 제1호, 125~151쪽.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4월 21일 보도자료.
- 박강미. 2013. 「국제영화제의 탄생」. 스토리하우스.
- 박광호. 2009. 「A Sophistication Framework for a Mother Company-Driven Global Manufacturing Network」. 《지능정보연구》 제15권 제1호, 65~85쪽.
- 박한규. 2013. 「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상향식(bottom-up) 접근으로서의 ‘역량강화’(empowerment)」. 《OUGHTOPIA》 제2권 제2호, 5~35쪽.
- 배영자. 2006. 「정보혁명과 미국제국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3호, 63~93쪽.
- 양인준. 2012. 「부동산 거래와 세제지원정책의 당부」.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1호, 21~61쪽.
- 오갑원. 2004.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외자유치전략」.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9~18쪽.
- 이경진. 2013.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세스: 한국화장품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597~612쪽.
- 이소은·금정호. 2014.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별 불균형 발전」.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3호, 205~229쪽.
- 이용숙. 2006. 「세계화시대의 지역경제 발전: 클러스터론과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비교」. 《경제와사회》 통권 제69호, 227~254쪽.
- 이용숙 허인혜. 2009. 「과주 LCD 산업집적지 형성에 관한 연구: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통권 제32호, 168~208쪽.

- _____. 2010.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아산, 탕정 LCD 산업집적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1호, 245~279쪽.
- 이재열·박경환. 2005. 「초국적 IT 아웃소싱 기업의 지리적 전략: LG CNS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인도 및 필리핀에의 진출 과정」. 《지리교육논집》 제49권 단일호, 300~320쪽.
- 이정협·김형주. 2005.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대응」.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권 제3호, 383~404쪽.
- 이형주·김인신. 2014.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한 관광개발 영향이 지역 주민의 지역정체성 상실 및 개발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5호, 411~426쪽.
- 임형백. 2011.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적용 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3권 제2호, 47~70쪽.
- 임혜란. 2013. 「생산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재편」. 《평화연구》 제21권 제1호, 73~107쪽.
- 전라남도. 2006. 「전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제성 높다」. 2006년 2월 21일 보도 자료.
- 정명기. 2011. 「독일 자동차기업의 생산의 세계화: VW와 BMW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29권 제3호, 101~121쪽.
- _____. 2012a. 「한국자동차산업의 생산의 세계화」.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2s호, 1~36쪽.
- _____. 2012b. 「독일자동차산업의 글로벌생산체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VW의 경우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30권 제3호, 1~21쪽.
- _____. 2012c. 「한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자동차산업의 생산의 세계화」.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1s호, 1~36쪽.
- 조성재. 2010. 「한국 재벌의 중국 진출에 따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개: 삼성, LG,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통권 80호, 184~216쪽.
- _____. 201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노동」. 《국제노동브리프》 제11권 제4호, 1~3쪽.
- 주민욱·최낙진. 2015. 「제주지역 신문의 ‘중국(인)’담론 연구」. 《동서언론》 제17집, 123~152쪽.
- 진린. 2006. 「인천광역시 미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과사회》 통권 제5호, 107~115쪽.
- 통계청. 2014.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2014년 10월 23일 보도자료.
- _____. 2015a. 「2014년 혼인·이혼통계」. 2015년 4월 23일 보도자료.
- _____. 2015b. 「2015 청소년 통계」. 2015년 4월 28일 보도자료.

- 한스 페터마르틴·하랄트 슈만, 강수돌 옮김. 1997.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영림카디널.
- 홍장표·이대식. 200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한국경제연구》 제17권, 231~256쪽.
- 황은정·이용숙. 2012. 『통영국제음악제의 의미와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통영국제음악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2012년 3월 24일.
- KIEP. 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 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attaneo, O., G. Gereffi, & C. Staritz. 2010. *Global value chains in a postcrisis world: A development perspective*. World Bank Publications.
- Coe, N. M., P. Dicken, & M. Hess. 2008.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alizing the potential."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3), pp. 271~295.
- Coe, N. M., M. Hess, H. W. C. Yeung, P. Dicken, & J. Henderson. 2004. "'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 a global production networks perspectiv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9(4), pp. 468~484.
- Coe, N. M., & Y. S. Lee. 2006. "The Strategic Localization of Transnational Retailers: The Case of Samsung Tesco in South Korea." *Economic Geography*, 82(1), pp. 61~88
- _____. 2013. "'We've learnt how to be local': the deepening territorial embeddedness of Samsung-Tesco in South Kor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3(2), pp. 327~356.
- Cumbers, A., C. Nativel, & P. Routledge. 2008. "Labour agency and union positionalitie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pp. 369~387.
- Dicken, P. 2011.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_____. 2015.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Henderson, J., P. Dicken, M. Hess, N. M. Coe, & H. W. C. Yeung.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3), pp. 436~464.
- Hudson, R. 2008. "Cultural political economy meets global production networks: a productive meeting?"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pp. 421~440.
- Huges, A., N. Wrigley, & M. Buttle. 2008. "Global production networks, ethical campaigning and the embeddedness of responsible governanc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pp. 345~367.
- Lee, Y. S. 1999. "Labor Shock and the Diversity of Transnational Corporate Strategy in

- Export Processing Zones.” *Growth and Change*, 30(3), pp. 337~365
- Lee, Y. S., and Y. C. Tee. 2009. “Reprising the role the developmental state in cluster development: The biomedical industry in Singapore.”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0, pp. 86~97.
- Lee, Y. S., I. Heo, & H. Kim. 2014. “The role of the state as an inter-scalar mediator in globalizing liquid crystal display industry development in Sou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1(1), pp. 102~129.
- Levy, D. L. 2008. “Political contestation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4), pp. 943~963.
- Liu, W. & Dicken, P. 2006.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 ‘obligated embeddednes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s automobile industry.” *Environment and Planning*, 38, pp. 1229~1247.
- OECD. 2014.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OECD.
- O’Rourke, D. 2005. “Market move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trategies to influence glob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9(1-2), pp. 115~128.
- UNCTAD.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
- _____.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United Nations Publication.
- Yang, C. 2009. “Strategic coupling of regional development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distribution of Taiwanese personal computer investment from the Pearl River Delta to the Yangtze River Delta, China.” *Regional Studies*, 43(3), pp. 385~407.
- Yang, D. Y. R., J. Y. Hsu, & C. H. Ching. 2009. “Revisiting the Silicon Island? The geographically varied ‘strategic coupling’ in th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parks in Taiwan.” *Regional Studies*, 43(3), pp. 369~384.
- Yeung, H. W. C. 2009.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competitive dynamic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 East Asian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43(3), pp. 325~351.
- _____. 2014. “Governing the market in a globalizing era: Developmental states,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inter-firm dynamics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1(1), pp. 70~101.
- Yeung, H. W. C., & N. M. Coe. 2015. “Toward a Dynamic Theory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Economic Geography*, 91(1), pp. 29~58.

신문기사

- 비즈앤라이프팀. 2014. “홈플러스, 상습 경품 사기 ‘들통’… 누리꾼들 ‘불매운동’.”
《경향신문》 2014년 8월 29일.
- 홍용덕. 2014. “연매출 10조 홈플러스, 시급 400원 인상을 거부하나.” 《한겨레》
2014년 9월 4일.
- 박문호. 2014. “영국 테스코 한국법인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 《뉴시스》 2014년
8월 29일.
- 김태현. 2015. “르노삼성 부활에 부산 차제조업 ‘훈풍’.” 《한국경제》 2015년 2월
25일.
- 김주식. 2010. “인천시 경제 활성화 기여 GM대우 사장 명예시민에.” 《파이낸셜뉴
스》 2010년 10월 7일.